

“불량식품 신고는 1399” 지난해만 9744건 접수

전년 대비 24% ↑ …‘이물’ 신고 최다

지난해 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1399)로 접수된 신고건수가 1년 전보다 대폭 증가했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총 9744건(월평균 800여건)의 불량식품 신고 전화가 1399에 접수됐다. 전년(7871건) 대비 24% 증가한 수치다. 신고 유형을 보면 ‘이물’이 32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 경과·변조(1006건), 제품변질(631건), 표시사항 위반(419건) 등이 뒤를 이었다. 무등록(신고)(342건), 허위·과대광고(179건) 등도 접수됐다. 지난 해 신고된 9744건 중 9109건을 조사한 결과(635건은 현재 조사 진행 중) 위반사항이 중하거나 고의적 위반이 확인된 경우는 1721건이었다. 식약처는 이들 신고에 대해 행정처분(1274건), 과태료 부과(338건), 고발(109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1399에 대한 홍보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국민들의 신고 의식이 개선돼 신고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신고 내용은 신속·정확하게 조사하고 제보자의 신분보호에도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제주공항, 3일 만에 운항 재개 폭설과 강풍으로 제주도가 고립되면서 제주공항에 몰려든 탑승객들. 23일 오후 5시경에 폐쇄됐던 제주공항은 25일 정오부터 운항을 재개했다. 이 사이 제주출발 예정이던 여객기 총 528편이 취소됐고, 8만6000여명이 제주에 발이 묶였다.

제주 | 뉴스스

하이트진로, 결국 23억 법인세 문다

대법원, 법인세 취소 소송 상고 기각

“홍콩법인, 국외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이자소득 법인세 부과 적법 최종 판결

하이트진로가 해외 자회사의 채무를 갚는 과정에서 외국법인에 지급한 이자에 법인세 23억여원이 부과되자 취소 소송을 벌였지만 결국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하이트진로가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자소득의 원천지는 원칙적

으로 지급자의 거주지에 따라 결정한다. 예외적으로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인 경우에만 사용지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번 사건 지급주체가 내국법인인 하이트진로인 점, 자회사인 진로홍콩을 하이트진로의 국외사업장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들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하이트진로는 1996년 2월 홍콩법에 따라 외국법인인 ‘진로홍콩’을 설립하고 발행주식을 전부 취득했다. 이후 진로홍콩이 변동금리부사채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이를 지급보증했던 하이트진로는 2006년 9월 원리금을 채권자인 외국법인들에 지급했다. 원금

6470만달러, 이자 2200만달러였다. 하이트진로 측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것이고 금전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자소득이라 하더라도 국외자회사인 진로홍콩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은 “사건 지급금은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해 옛 소득세법이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또 진로홍콩이 하이트진로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이를 항상 행사한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하이트진로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공정위, CJ그룹 ‘일감 몰아주기’ 조사 착수

CJ CGV 스크린 광고 대행 독점 의혹
이재현 회장 동생 이재환씨 회사 조사

CJ그룹이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의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5일 공정위는 “공정위 시장감시국이 지난 주 서울 삼양동 CJ CGV 본사와 서울 대치동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 간의 거래내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CJ회장의 동생 이재환씨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2005년 설립된 이 회사의 주된 사업은 CGV 극장에서 상영되는 광고를 대행하는 것으로 연간 100억원 수준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다. CJ CGV가 지난해 1~9월 스크린 광고 명목으로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거래한 금액은 56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강

력하게 규제해 왔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의 내부거래액이 연간 200억원이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된다. 연 매출액의 12%가 넘어도 마찬가지다. 만약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총 매출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CJ를 포함해 한진, 현대, 하이트진로, 한화 등 5개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삼성, 현대차, LG, SK 등 4대 그룹은 총수일가 지분을 30%로 낮추는 방식 등을 통해 규제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형호 기자 ranbi@donga.com

오늘의 채널A 갈 때까지 가보자 26일 오후 8시20분



독학으로 키운 유기농 ‘매향’ 딸기

경남 진주 사곡리의 오지마을에 웬만한 박사도 울고갈 만한 지식을 자랑하는 정만열씨(사진)가 살고 있다. 15년째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그는 토지부터 퇴비 등 유기농 자연농법을 개발하며 관련 지식을 쌓고 있다. “무조건 배워야 잘 산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다. 그렇게 독학으로 키운 딸기는 ‘매향’이라는 품종으로 연 매출 1억5000만 원을 올린다. 정씨는 “사실 5년 전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였다”고 말한다. 기본지식을 쌓기 위해 검정고시로 1년 만에 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쳤고 2014년 대학까지 졸업한 그의 인생사가 남 다르다. 오후 8시20분 공개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이제 업로드 속도도 두 배로 SKT, 업링크 CA 기술 적용 (주파수묶음)

동영상 등을 업로드할 때도 주파수를 묶어 속도를 2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이동통신 주파수묶음(CA)기술이 국내 처음으로 상용화된다.

SK텔레콤은 상향 주파수 2개 대역을 묶어 데이터 업로드 속도를 높이는 업링크 CA 기술을 네트워크 시스템에 적용하고 상용화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LTE에서 업링크 속도는 주파수 10MHz 폭당 25Mbps, 업링크 CA로 10MHz 두 개를 묶을 경우 최대 50Mbps의 속도 구현이 가능하다. SK텔레콤은 아울러 업로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솔루션 기술과 기존 주파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등도 추가 적용할 계획이다. 업링크 CA는 1월말~2월 중순까지 수도권 및 광역시를 시작으로 전국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그 외 기술도 3월께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해당 기술이 적용된 단말이 출시되면 상반기 중 본격적인 상용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유저제자쿠편츠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의 편의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TV 프로그램 26일 (화)

채널A 02-2020-3100 KBS 02-781-1000 MBC 02-780-0015 SBS 02-2113-5000 TV조선 1661-0190 JTBC 02-751-6000 MBN 02-2000-3114 EBS 02-526-2000 @재방송 ! 시작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채널 A	KBS 1	KBS 2	MBC	SBS	TV조선	JTBC	MBN	EBS 1	지역민방
5:40 특별기획(그들처럼 먹어야 1부)Ⓜ 6:40 굿모닝A	5:10 내교환 스페셜 6:00 KBS뉴스광장	6:00 2TV 아침(1, 2부)	5:10 네트워크 특선-아부의 만찬Ⓜ 6:00 MBC뉴스투데이(1, 2부) 7:50 아침드라마-내일도 승리Ⓜ 8:30 생방송 오늘 아침Ⓜ 9:30 MBC생방송 9:30 9:45 기분 좋은 날Ⓜ	5:10 굿모닝510-사람 사는 세상 6:00 모닝와이드(1, 2, 3부) 8:30 아침연속극-내 사위의 여자Ⓜ 9:10 좋은 아침Ⓜ 10:10 뉴스 10:30 SBS생방송 10:30 11:10 일일드라마-마녀의 성Ⓜ	5:40 내 몸 사랑 설명서Ⓜ 6:50 TV조선 뉴스7 7:30 생방송 광화문의 아침 8:30 TV조선 뉴스9 9:40 김광일의 신동방송 11:10 썬 토크쇼-강적들!Ⓜ 12:40 엄정섭 정혜전의 뉴스를 쏜다 2:30 이하원의 시사Q 3:40 네트워크 뉴스 3488 오늘 4:00 장성민의 시사탱크 5:30 이슈 해결사 박대장 6:30 이것은 실화다Ⓜ 7:30 엄마가 뭐길래Ⓜ 8:30 연애가 X파일 투데이 8:45 TV조선 뉴스쇼 '판' 9:50 살림9단의 만물상Ⓜ 11:00 솔깃한 연예토크-호박씨Ⓜ 12:30 황교익의 죽기 전에 꼭 먹어야 할 음식 101Ⓜ ※ 1:40 보금자리Ⓜ	6:00 유자차 상벌자!Ⓜ 7:00 내 사랑 똥2Ⓜ 7:30 JTBC뉴스 아침엔 9:00 김재동의 투유투유Ⓜ 10:20 비정성희Ⓜ 11:55 낭장고를 부탁해Ⓜ 1:15 아는 형님Ⓜ 2:35 JTBC뉴스 현장 3:50 4시 사건 반장 5:10 5시 정치부 회의 6:30 낭장고를 부탁해Ⓜ 7:55 JTBC뉴스룸 9:30 최고의 사랑Ⓜ 10:50 투유 프로젝트-슈가맨Ⓜ 12:25 금드라마-마담 앙드레Ⓜ ※ 1:45 타인의 취향Ⓜ 3:10 스페셜 다큐멘터리(백골관 속이까지 3, 4부)	5:50 나는 자연인이다Ⓜ 6:50 굿모닝 MBN 8:00 아침의 창 매일경제 9:20 뉴스파이터 10:40 전국네트워크뉴스 10:50 고수의 비법 황금알Ⓜ 12:30 알토란Ⓜ 1:50 기막힌 이야기 실재상황Ⓜ 3:10 뉴스 빅5 4:40 뉴스 & 이슈 6:10 MBN뉴스아이드 7:40 MBN뉴스8 8:40 전국제패Ⓜ 9:50 휴먼다큐(사노라면) 11:00 엄지의 제왕Ⓜ 12:40 엄지의 제왕Ⓜ ※ 1:30 스포츠 야	5:40 성공 인생 후반전 7:00 레디디 버그 7:30 토크쇼 토크로로 7:45 로보카 폴리 8:00 덩동맹 유치원1 8:10 와이-최고다 호기심 딱지 8:20 덩동맹 유치원2 8:40 코코로 다코 9:00 크레명의 창의력 팡팡 9:40 부모(부모-이슈 N 맘)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10 EBS스페이스 공감2Ⓜ 13:10 프리덤 인 13:40 줄거운 수학 EBS매스 13:50 오스카의 오아시스 14:00 초등 1, 5, 3년 겨울방학생활 15:00 꼬마철학자 유고 15:30 세계사 시간여행 15:40 모피와 친구들 15:50 크레명의 창의력 팡팡 16:30 코코로 다코 16:45 덩동맹 유치원2 18:00 생방송 특목 보니 하니 19:00 레디디 버그Ⓜ 19:30 뉴스 19:50 극한 직업Ⓜ 20:50 세계테마기행(호주 등부 3,000km 낭만유랑) 21:30 한국기행(태안반도 겨울이하기) 21:50 다큐프리임(황금 비둘기의 비밀) 22:45 다큐영화(길 위의 인생) 23:35 프리덤 인 24:10 EBS인문학 특강 1:00 세계명작극장(지구에서 말까지)	TJB (대전) 042-281-1101 12:45 세상발견 유레카Ⓜ 14:00 토크쇼 토크로로 18:30 생방송 투데이 20:55 시사토크 공감 CJB (창주) 043-279-3800 7:30 굿모닝 충북 세종 10:30 CJR스페셜 15:00 국악콘서트 율림 18:20 세상발견 유레카 KNN (부산 경남) 051-850-9000 7:30 보너스워이드 15:00 데마스패션 18:25 생방송 투데이 1:05 다큐멘터리 세계여행Ⓜ TBC (대구) 053-760-2200 13:00 오도모비네 TBC불편Ⓜ 14:10 리얼 인터뷰 불온 18:20 상상 고창별곡 베스트 20:25 8뉴스 UBC (울산) 052-228-6200 12:45 세상발견 유레카Ⓜ 14:00 토크쇼 토크로로 20:35 생방송 투데이 1:05 지금 무대에선 KBC (광주) 062-650-3094 11:15 글로벌 문화유산 12:55 한국 토크 101 19:50 극한 직업Ⓜ 20:50 세계테마기행(호주 등부 3,000km 낭만유랑) 21:30 한국기행(태안반도 겨울이하기) 21:50 다큐프리임(황금 비둘기의 비밀) 22:45 다큐영화(길 위의 인생) 23:35 프리덤 인 24:10 EBS인문학 특강 1:00 세계명작극장(지구에서 말까지)